

일본 경제 동향_2017년 11월

(TPP11, 큰 틀 합의)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2
2.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6
3. 엔저·고주가·고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TPP11, 큰틀 합의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 무역적자 증가 반전	15
2. 일본인 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6	2017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5.7	117.7	115.8	-
GDP증가율(연율,%)	1.2	1.0	1.6	1.2	2.5	1.4p)	-	-	-	-
국내 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70.1	75.9	20.5	24.0	18.9	20.7p)	-	-	-
	공공투자	23.4	24.3	7.2	7.2	5.5	6.3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17.1	20.8	10.3	11.5	4.1	2.9	4.5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3	0.2	0.3	0.2	-	-0.1	0.1	0.3
	전년동기비	0.5	△0.3	△0.3	0.2	0.4	-	0.5	0.7	0.7
실업률(%)	3.4	3.4	3.1	2.9	2.9	2.8	2.8	2.8	2.8	-
수출(조엔)	75.6	70.0	18.6	19.0	18.8	19.6	6.5	6.3	6.8	6.7
수입(조엔)	78.5	66.0	17.2	18.6	18.1	18.4	6.1	6.2	6.1	6.4
무역수지(조엔)	△2.9	4.1	1.4	0.4	0.7	1.2	0.4	0.1	0.7	0.3
경상수지(조엔)	16.4	20.6	4.2	5.8	4.6	7.0	2.3	2.4	2.3	-
환율	달러	121.1	108.8	109.4	113.6	111.1	111.0	112.4	109.9	110.7
	원화(100엔)	935	1,068	1,059	1,015.7	1,020	1,020.3	1,009	1,030	1,022
금리(10년물,%)	0.36	△0.051	△0.007	0.072	0.044	0.046	0.075	0.041	0.022	0.076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7,951	19,241	19,503	19,880	20,045	19,670	19,924	21,267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세 지속

- '17.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5.8로 전월비 1.9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

- '17.9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2,853억 엔 흑자

- '17.10월 수출은 6조 6,931억 엔, 수입은 6조 4,077억 엔

☐ (환율) 엔저세 가속

- '17.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3.0 엔으로 전월비 2.1% 엔저

* '17.10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02원으로 전월비 2.0% 원고·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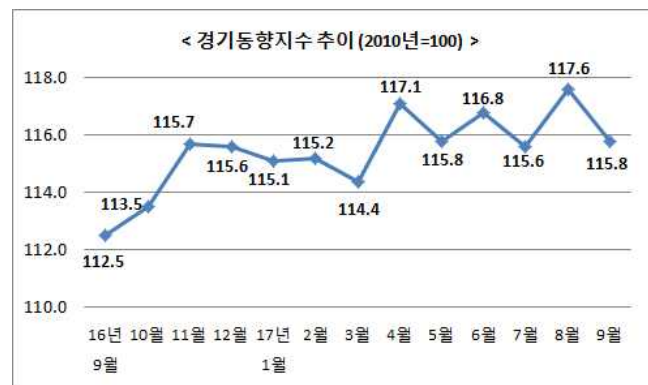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세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지속

-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활동도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음
- 고용·소득 정세는 견조한 추이이나, 소비는 일시적인 요인도 있어 회복이 한풀 꺾이고 있음



자료 : 내각부

-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도 전월보다 1.9p 하락한 115.8을 기록
 - 광공업생산재출하지수, 투자재출하지수의 큰 폭 하락이 경기동향지수의 하락에 기여
 -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경기동향지수의 추이로 보아, 경기기조판단을 「개선되고 있다」로 11개월째 유지. 이에 따라 이번 경기확대국면이 1965년-1970년까지의 「이자나기」 경기를 상회하는 58개월 지속

□ (전 망)

- 앞으로 일본경제는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회복과 공공투자의 증가, 견조한 개인소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성장량을 상회하여 추이할 전망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6.8로 전월보다 1.6p 상승

<GDP>

- 일본 내각부가 11월15일 발표한 2017년 3분기(7월-9월) GDP 속보치는 실질기준으로 전년비 0.3% 증가, 연율 환산으로는 1.4% 증가함
 - GDP는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아시아 지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 호조로 외수가 증가한 외에, 설비투자도 견조를 보인 한편,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개인소비는 감소함
- 실질GDP의 내역은 내수가 0.2%p의 감소효과, 외수의 기여도는 0.5%p의 플러스로 나타남
 - 내수가 경기를 지탱했던 전기와 견인력이 역전됨
 - 항목별로 보면, 개인소비가 0.5% 감소로 7분 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장마와 태풍 등 기후불순으로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이 부진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수출은 1.5% 증가, 수입은 1.6% 감소함. 對미국 자동차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수입량은 감소함
 - 설비투자는 0.2% 증가로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 기업수익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배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함
 - 주택투자는 0.9% 감소, 공공투자는 2.5% 감소함
- IMF는 선진국들의 투자와 무역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7월 시점의 예측치보다 0.2%p 상향 수정된 1.5%로 예측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분	2015	2016	2015	2016				2017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8월	
전기비			△ 0.2	0.5	0.5	0.2	0.4	0.3	0.6	0.3p)	
전기비연율	1.2	1.0	△ 1.0	2.1	2.0	0.9	1.6	1.0	2.6	1.4p)	
전년동기비			0.9	0.5	0.9	1.0	1.6	1.5	1.4	1.7p)	

자료: 내각부, p)는 1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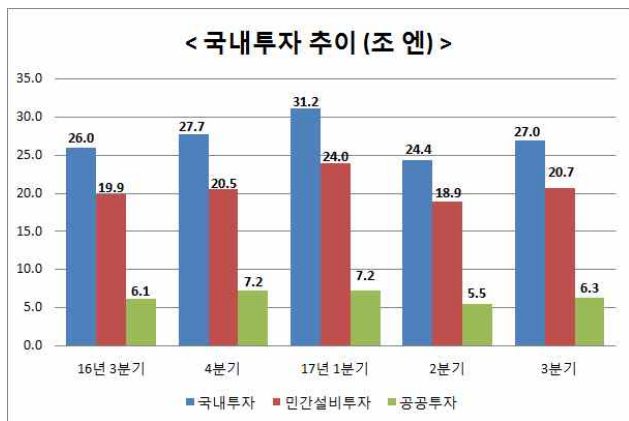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3분기 국내투자, GDP의 20.3%

- '17.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1.1% 증가한 27.0조 엔으로 GDP의 20.3%

□ (민간설비투자)

- '17.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0.7조 엔, 국내투자의 76.6%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9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판단은 부족감이 보임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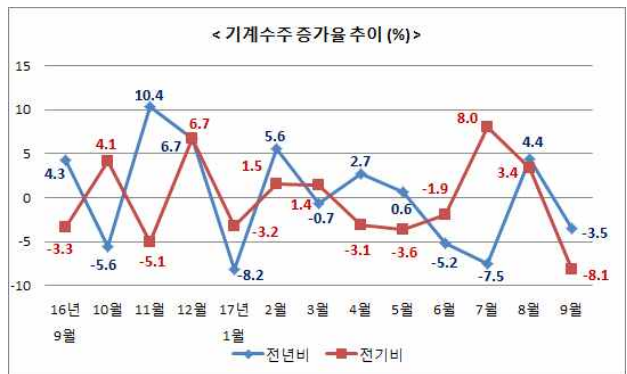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9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8.1% 감소,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부진

□ (공공투자)

- '17.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6.3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4%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건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9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3.8% 감소, 8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0.1% 감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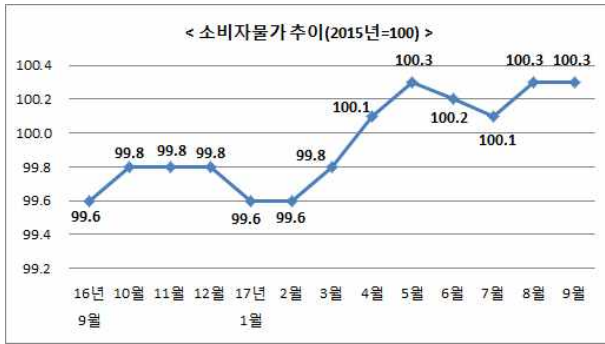
□ '17.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0%

- '17.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3(2015년= 100)으로 전월비 0.0%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7% 상승,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을 견인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전년동월비)이 확대될 것이나 회복권내에서 추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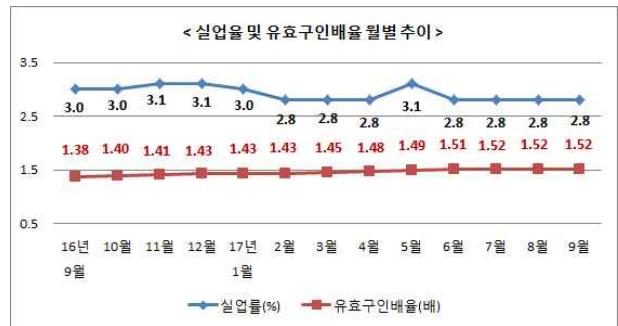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7.19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2.8%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한 노동수급의 팽박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이어짐
 - 완전실업자 수는 186만 명으로 전월비 2만 명 증가
 - 자발적 이직자, 비자발적 이직자 모두 증가
 - 취업자 수는 6,550만 명으로 15만 명 감소, 피고용자 수는 5,839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
- 유효구인배율도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17.9월 유효구인배율은 1.52배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우편·운수업 분야에서 구인 수가 증가
 - 기업의 구인 수, 구직자 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일손부족감은 커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총 합)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17.10월 무역수지는 2,853억 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축소
-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2,818억 엔에서 2,657억 엔으로 감소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166억 엔에서 6,447억 엔으로 증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493억 엔에서 2,410억 엔으로 감소

< 2017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	6.8	14.1	7.9	6.7	14.0	-1.5	75.9	32.2
수입	6.1	12.0	-1.6	6.4	18.9	4.9	70.5	30.1
수지	0.7	37.7	600.0	0.3	-40.7	-57.1	2.5	-21.9

자료 : 재무성

□ (수 출) '17.10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7.10월 수출은 전월대비 1.5% 감소한 6조 6,931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3.8% 감소
- 5대 수출 품목 및 수출순위 모두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 감소폭이 -8.3%로 가장 큼
 -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철강의 수출 증가폭이 1.2%로 가장 큼

< 2017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0,550	3.2	18.5	10,587	6.5	0.4	96,013	3.8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580	12.3	1.1	3,480	9.1	-2.8	32,894	11.8
3	자동차부품	3,385	10.8	10.5	3,249	6.3	-4.0	31,892	14.2
4	철강	2,640	15.5	-0.6	2,672	15.6	1.2	26,876	14.1
5	원동기	2,442	19.6	19.7	2,239	10.5	-8.3	22,431	14.8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대만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2.7%로 가장 큼
 - 수출증가 지역·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5.5%로 가장 큼
 - 한국에 대한 수출은 1.5% 감소

< 2017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2,840	29.3	5.3	13,541	26.0	5.5	120,039	20.6
2	미국	12,974	11.1	9.6	12,817	7.1	-1.2	124,308	7.5
3	ASEAN	10,192	17.4	2.9	10,250	19.5	0.6	96,802	14.0
4	EU	7,664	11.5	14.1	7,534	15.8	-1.7	71,473	7.7
5	한국	5,024	17.3	4.4	4,951	18.3	-1.5	49,163	20.4
6	대만	3,947	4.7	10.5	3,842	4.8	-2.7	37,247	6.6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7.10월 수입은 금액, 물량 모두 증가

- '17.10월 수입은 전월비 4.9% 증가한 6조 4,077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0.8%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의류·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11.8%로 가장 큼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증가폭이 9.2%로 가장 큼

< 2017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5,238	15.0	-6.8	5,721	43.0	9.2	57,424	29.4
2	액화천연가스	2,706	8.6	-21.7	2,800	15.5	3.5	32,408	22.0
3	의류·동부속품	3,180	1.3	-0.1	2,806	21.9	-11.8	24,367	-3.8
4	의약품	2,361	18.4	10.8	2,492	2.8	5.5	22,276	-3.6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31	16.8	6.1	2,491	23.0	-1.6	23,048	10.8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ASEAN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9.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4% 증가
- 수입 감소 지역·국가 중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6.4%로 가장 큼

< 2017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5,658	1.6	7.3	16,198	14.3	3.4	149,226	6.2
2	ASEAN	9,224	13.3	-3.4	10,084	21.8	9.3	94,713	14.0
3	EU	7,497	15.3	-0.9	8,037	18.1	7.2	71,983	7.2
4	미국	6,808	17.2	4.9	6,370	3.1	-6.4	66,653	10.3
5	호주	3,280	16.3	-17.0	3,272	12.6	-0.2	35,818	35.2
7	한국	2,530	18.0	0.1	2,541	12.2	0.4	25,597	16.0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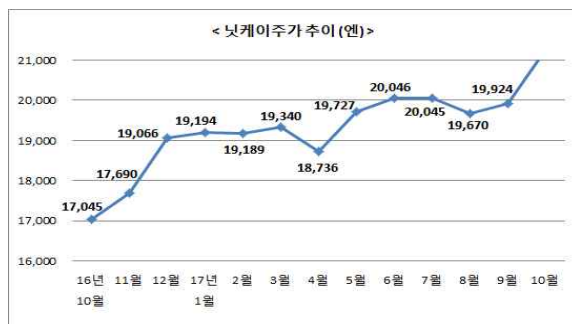
3.엔저 · 고주가 · 고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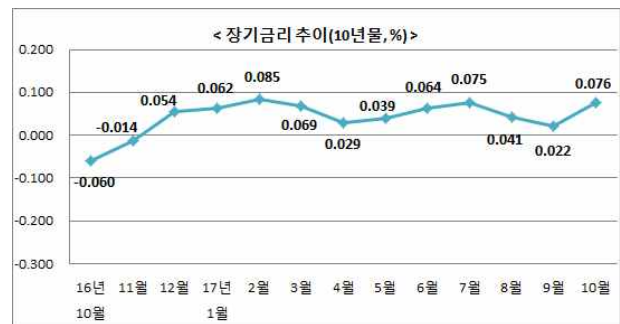
- ‘17.10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6.7% 상승한 21,267엔

□ (금 리)

- ‘17.10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204.5% 상승한 0.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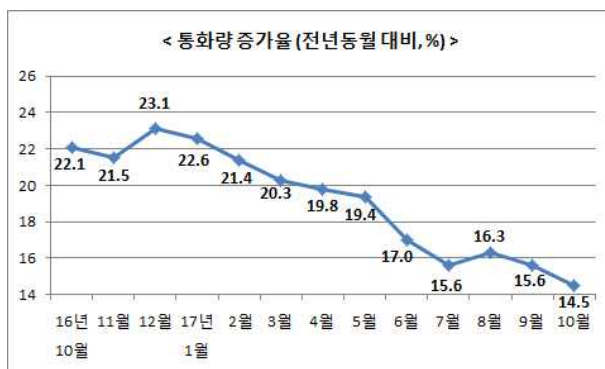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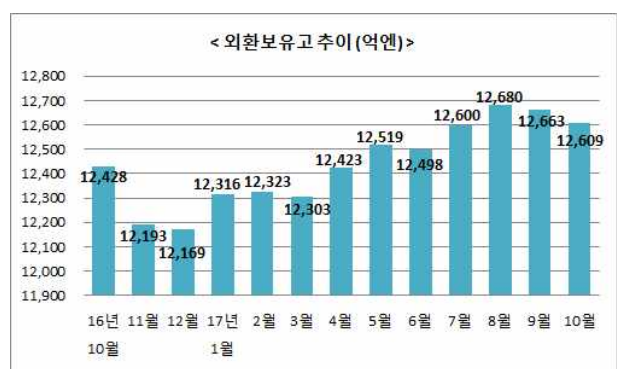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7.10월 본원통화(머니테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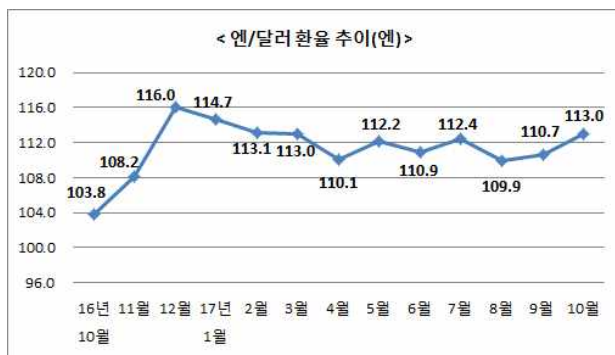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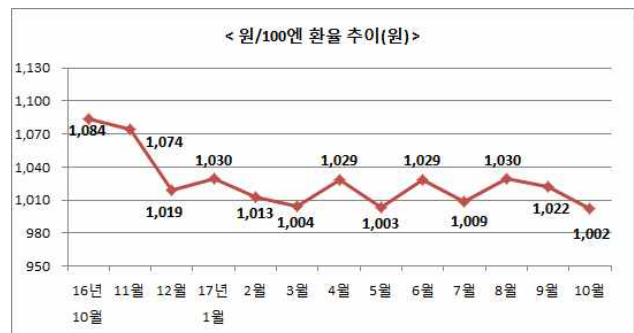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7.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1% 하락한 113.0엔(엔저)
- ‘17.11월 들어서는 113.7엔까지 엔저가속 이후 11월 20일 현재 112.2로 진정
- 최근 엔저세 가속·달러고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 환경을 근거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연내 추가금리인상 예측, 이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에 의한 것임
- 여기에다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엔저·달러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115엔대까지 엔저가 가속될 전망도 있음
- ‘17.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02원으로 전월의 1,022원에 비하여 2.0% 원고·엔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 반전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
- ‘17년 9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5,020억 엔으로 전월비 54.2%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6		2017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7월	8월	9월	1-9월
금 액		681,657	186,332	171,402	105,158	114,871	40,651	29,200	45,020	427,589
증 율	전기비	-2.1	45.9	-8.0	-49.3	9.2	15.3	-28.2	54.2	-
	전년동기비	-2.1	5.8	-21.2	-19.4	-38.4	-26.1	-43.8	-43.8	-17.5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에 대한 투자가 133.2% 증가
 -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509.5%의 큰 폭 증가
 -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유일하게 29%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635억 엔으로 전월비 125.9%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6		2017						
	금액	증가율*	2분기		3분기		9월		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81,657	-1.7	105,158	-49.3	114,871	9.2	45,020	54.2	427,589
아시아	80,321	-43.3	19,058	-4.4	21,355	12.1	7,529	26.8	60,341
중 국	13,076	-10.8	3,721	9.5	3,417	-8.2	1,247	16.3	10,536
한 국	3,461	-26.6	1,026	16.3	1,280	24.8	635	125.9	3,188
북 미	181,747	-23.4	39,646	-22.9	42,975	8.4	13,590	6.3	134,077
미 국	176,406	-23.4	38,646	-23.5	41,689	7.9	13,317	9.7	130,863
중남미	36,110	58.7	2,682	-33.0	3,613	34.7	2,450	509.5	10,293
유 럽	366,263	35.8	40,168	-66.1	42,980	7.0	20,149	133.2	201,478
대양주	12,925	-32.4	1,489	-56.0	1,994	33.9	626	8.3	6,862
중동	1,581	-12.4	263	-72.2	281	6.8	105	81.0	1,491
아프리카	7,297	6.6	1,849	4.9	1,673	-9.5	571	-29.0	4,713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TPP11, 큰 틀 합의

- TPP에 참가한 11개국이 11월 9일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협정 TPP11을 체결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봄
-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정리된 TPP중 규범·규정 분야에서는 일부 항목을 동결하는 한편, 관세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타협을 봄

□ 규범·규정 분야, 20개 항목 동결

- 규범·규정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등 20개 항목을 미국의 복귀 시까지 일시적으로 동결기로 함
 - 이들 항목들은 미국이 자국의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했던 것들이 중심으로, 각국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발효를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었음
 - 11개 국가들이 동결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지적재산권 관련 11개 항목과 기타 분야 9개 항목임
 - 지적재산권은 바이오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및 특허의 연장기간 등임
 - 기타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쟁처리, 투자가와 국가의 분쟁해결(ISDS)조항 포함
 - 20개 항목 중에는 조문의 극히 일부만을 동결하는 것도 있음
- 한편, 큰 틀 합의 시 계속 협의하고 있던 동결후보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중 3개 항목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 3개 항목은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브루네이의 서비스·투자, 베트남의 무역제제를 둘러싼 규범·규정 등임. 이들 3개 항목이 추가되면 23개 항목이 동결되는 셈임

□ 시장개방 분야, TPP 원형 유지

- 광공업제품이나 농산품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TPP 원형에서 약속한 관세철폐나 수입한도는 그대로 유지

- 관세분야에서는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한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출이 촉진되는 이점이 있음
- 다만 탈퇴를 표명한 미국을 상대로 각국이 약속한 관세철폐는 일단 무효가 됨

□ 미국의 TPP 탈퇴로 TPP11 규모 크게 축소

- 미국의 TPP 탈퇴로 TPP에 참가한 각국에 가장 큰 매력인 미국시장의 개방이 백지화됨에 따라 TPP는 공중분해 될 뻔함
- 미국의 탈퇴에 따라 2015년 10월에 합의한 TPP 원형과 비교하면 TPP 규모는 명목 GDP의 1/3, 인구나 무역총액은 절반정도로 축소되었음
- 그렇더라도 11개국만으로 명목GDP의 13%, 인구의 7%, 무역총액의 15%를 커버하는 하나의 큰 무역권임

□ TPP11 완결에 일본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 맡아

- 이에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통상권익다툼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되는 것을 피하고자 다국 간 틀을 유지한 TPP11에 의한 부활에 전력투구해 왔음
- 미국이 남아있던 당시의 TPP 원형을 둘러싸고는, 미국 주도에 불만을 가진 많은 나라들이 통상규범·규정의 동결이나 완화를 요청
- 바이오 후발약품의 발매를 늦추기 위한 개발데이터의 보호기간(실질 8년)이나 말레이시아의 국영석유페트로나스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의 국영기업에 관한 규율 등이 초점이 되었음
- 전자상거래(EC)의 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보호 등 일본기업이 중시하는 규범·규정의 대다수는 TPP원형대로 유지
- 일본은 앞으로 TPP를 한중일 등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체협(RCEP) 등 여타 자유화 교섭의 모범으로 삼아, 질 높은 무역협정을 요구할 생각임

□ 미국의 복귀가능성 높아질 전망

- TPP11 각국은 2018년에 서명, 비준을 거쳐 빠르면 2019년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 탈퇴한 미국에게도 복귀를 촉구할 계획임

- 일본 측은 11개국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복귀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으로서는 TPP11을 비롯한 메가 FTA로부터 배제되는데 따른 불이익 내지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TPP로 복귀할 필요성이 클 것임
 - TPP와 TPP11 등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TPP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2030년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0.5% 증가하나, 미국이 제외된 TPP11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본정부는 2017년 말 편성하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내 농가를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임. 해외산농산물의 증가로 타격을 받는 축산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될 전망
- TPP는 아베총리가 성장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할 만큼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에서도 몇 안 되는 최중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TPP를 내각지지율 향상 등으로 이어지게 할 의도임
- 미국이 빠진 TPP11의 경제규모는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교역의 될 최초의 메가통상협정이 탄생하게 됨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2017.11.9/10/11)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증가 반전

□ (총 합)

- '17.10월 대일무역적자는 2,572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증가
 - 대일수입에 비해 대일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임
- '17.10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6%에서 4.1%로 하락한 동시에,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8%에서 11.7%로 하락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7%에서 7.6%로 하락

< 2017년 10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515	16.0	18.9	1,850	-12.1	-26.4	21,846	10.0
대일 수입	4,927	16.4	8.6	4,422	4.8	-10.2	45,451	17.6
무역 수지	-2,413	16.8	-0.2	-2,572	21.5	6.6	-23,605	25.6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7. 10월 대일수출은 1,850백만 달러로 전월비 26.4%의 큰 폭 감소
 - 이는 동기간 중 총수출증가율 이나 일본의 수입증가율을 감안하면 대일수출이 크게 부진했음을 시사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9월	16.0	18.9	35.0	17.1	12.0	-1.6
2017.10월	-12.1	-26.4	7.1	-18.4	18.9	4.9
2017.1-10월	10.0	-	17.3	-	30.1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출품목에는 기초산업기계 대신에 금속광물이 포함된 가운데,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감소
- 광물성연료의 대일수출 감소폭이 전월비 -55.8%로 가장 큼

< 2017년 10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명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515	16.0	18.9	1,850	-12.1	-26.4	21,846	10.0
1	철강제품	351	22.7	7.0	291	-0.8	-17.1	3,242	27.0
2	전자부품	148	-19.7	12.1	147	-13.7	-0.7	1,406	-7.9
3	광물성연료	265	36.8	35.2	117	-32.1	-55.8	2,223	30.4
4	정밀화학제품	154	17.6	10.8	116	9.4	-24.7	1,291	14.0
5	산업용전자제품	147	26.3	13.1	108	-26.6	-26.5	1,228	4.7
6	수송기계	147	9.9	15.7	102	-10.9	-30.6	1,307	9.4
7	석유화학제품	154	13.1	27.3	95	-23.6	-38.3	1,323	22.0
8	기계요소공구·금형	116	26.6	30.3	81	-10.0	-30.2	928	2.3
9	금속광물	80	-24.8	3.9	78	-27.1	-2.5	739	-22.5
9	농산물	100	39.1	16.3	78	-11.3	-22.0	866	1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7.10월 대일수입은 4,422백만 달러로 전월비 10.2%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감소율 9.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9월	16.4	8.6	22.6	2.9
2017.10월	4.8	-10.2	7.9	-9.2
2017.1-10월	17.6	-	18.8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에는 전기기계 대신에 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 전자부품과 수송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감소
- 수송기계의 대일수입증가폭이 18.9%로 가장 큼
- 대일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기계의 대일수입감소폭이 -22.8%로 가장 큼

< 2017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7.9월			2017.10월			2017.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4,927	16.4	8.6	4,422	4.8	-10.2	45,451	17.6
1	전자부품	613	29.7	12.1	701	36.4	14.4	5,516	15.6
2	정밀기계	575	18.2	-7.6	567	36.2	-1.4	6,617	119.2
3	철강제품	564	20.7	11.5	464	0.2	-17.3	5,020	14.4
4	석유화학제품	400	34.0	23.5	337	9.3	-15.7	3,711	17.9
5	정밀화학제품	402	19.7	-4.5	331	-4.4	-17.7	3,470	6.2
6	수송기계	238	-2.8	5.3	283	8.2	18.9	2,278	5.2
7	기초산업기계	277	-0.4	15.9	262	-9.4	-5.4	2,662	6.2
6	산업용전자제품	292	1.7	18.7	232	-19.0	-20.5	2,481	-6.5
9	플라스틱제품	235	10.9	14.6	185	-10.5	-21.3	1,959	3.6
10	산업기계	189	8.7	2.7	146	-13.2	-22.8	1,818	1.2

2. 일본인 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 (동 향) '17.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4분기 연속 증가

○ '17.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67백만 달러로 전기비 110.4%의 큰 폭 증가

- 건수 면에서도 전기비 19.4% 감소

- 반면,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0.5%의 큰 폭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5		2016		2017.1분기		2017.2분기		2017.3분기		2017.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69 (-24.2)	407 (13.4)	98 (42.0)	412 (1.2)	79 (-19.4)	867 (110.4)	246 (18.3)	1,686 (90.1)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632 (-25.1)	3,851 (-38.4)	655 (3.6)	5,745 (49.2)	640 (-2.3)	3,991 (-30.5)	1,927 (-10.1)	13,587 (-9.7)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11월 22일 스미토모세이카사와 고흥수성 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8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2017.11.22. 연합뉴스)
 - 스미토모세이카는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정밀화학기업임
-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 기업인 일본의 아이리스오야마가 IFEZ(인천경제자유구역)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 부지 2만7619㎡ 규모로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시설을 건립(2017.11.14. 일간경기)
 - 아이리스오야마는 송도지구에 5000만 불 이상을 투자해 소형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 시설을 건립할 예정
-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오는 2020년까지 한국에 1조원을 투자하며 사업 확대에 나섬(2017.10.20. 중앙일보)
 - 스펠본드'(Spunbond) 부직포 사업에 1,150억 원, 첨단 부품 소재인 'PPS 수지'에 1,000억 원, TBSK에 4,000억 원, TBCK에 1,5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요인과 사례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7.10월~2017.11월)

□ 국내 기관

- 『일본을 통해 본 차이나리스크 대응 전략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11월20일
http://tri.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709
- 『일본 3/4분기 실질 GDP성장률(속보치), 전기대비 +0.3%』 한국은행, 2017년 11월1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0529&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1&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11월11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일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11월11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 배경 및 전망』 한국은행, 2017년 11월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0443&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기업의 수익성 국제비교 및 평가』 한국은행, 2017년 11월8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0411&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미쓰비시 상사와 이토추 상사, 편의점에서 다시 맞붙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7년 11월2일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828>

-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연 논란』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10월28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24일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96655&searchIssue=&searchWrt=&pageIndex=1

-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예상』 한국은행, 2017년 10월2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40009&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6&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화학소재업체, 전기자동차용 전자분야 경쟁력이 압도적』 2017년 10월17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list&idx=53710&recom=2854&ord=0

-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KOTRA, 2017년 10월10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2&reportsIdx=821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

□ 일본 기관

- 『일본 제조업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조사보고』 국제협력은행, 2017년 11월 23일
<http://www.jbic.go.jp/ja/information/press/press-2017/1122-58812>
- 『국제비교로 본 낮은 일본의 생산성』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7년 11월 23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7/kuma171122ET.pdf>
- 『TPP11의 큰틀합의와 일본의 선택』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7년 11월18일
<http://www.iti.or.jp/column047.htm>
-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동향』 미즈호 종합연구소, 2017년 11월17일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as171116.pdf>
- 『머더공장 기능의 경제·사회경제적 효용과 지방창생지원』 일본정책투자은행.
2017년 11월11일
http://www.dbj.jp/ja/topics/region/industry/files/00000028850_file2.pdf
-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일본의 경쟁력 : 제 4차산업혁명의 최근동향』 노무라종합연구소,
2017년 11월7일
<http://www.nri.com/~media/PDF/jp/opinion/teiki/chitekishisan/cs201709/cs20170902.pdf>
- 『대내직접투자 촉진체제정비 등 조사』 경제산업성, 2017년 10월2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623.pdf
- 『2017년판 후생노동백서-사회보장과 경제성장』 일본 후생노동성, 2017년 10월25일
<http://www.mhlw.go.jp/wp/hakusyo/kousei/17/>
- 『2030년의 일본을 디자인 한다』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2017년 10월25일
http://www.service-js.jp/modules/contents/?ACTION=content&content_id=1166